

2020년 도 무형문화재 위원회

제8차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0. 9. 18.(금요일), 14: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최종호(부위원장), 김태식, 만당(최재호), 배영동,
임장혁, 황경숙 (이상 6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무 형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검토사항】

1	‘금산농바우끄시기’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재검토	비공개
2	‘제주큰굿’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재검토	부분공개
3	‘인삼재배와 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재검토	부분공개
4	국가무형문화재 제98호 ‘경기도도당굿’ 정상화를 위한 조치계획(안) 검토	비공개

검 토 사 항

검토사항

안건번호 무형2020-8-001

1. ‘금산농바우꼬시기’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재검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2. ‘제주큰굿’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재검토

가. 제안사항

‘제주큰굿’의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제주도에서 ‘제주큰굿’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신청(’15.11.)이 있어, 2016년도 신규종목 지정 조사계획에 따라 관계전문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8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2차 회의(’18.2.23.)에서 검토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재검토를 위한 자문회의(’20.9.11.)를 실시하고, 종목 지정가치 여부에 대하여 재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종목 및 추진경위

- 신청종목 : 제주큰굿(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3호, ’01.8.16. 지정)
 - 보유단체: (사)제주큰굿보존회(’12.9.12. 설립)
 - ※ 보유자 서순실(’20.5.27. 인정) 등 회원 9명으로 구성
- 2016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분야 지정 조사 계획 수립(’16.1.26)
- ‘제주큰굿’ 학술조사 실시(’16.4월~10월, 국립무형유산원)
 - 제주큰굿 연행실태 및 전승가치·전승현황 등 조사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조사(’17.1월~2월)
- 무형문화재위원회 제2차 회의 검토(’18.2.23.)
 - 의결내용: 국가무형문화재 및 시도 무형문화재의 합리적 관리 방안 마련 시까지 판단을 보류함.
 - ※ ’18~’19년까지 국가무형문화재 및 시도무형문화재의 합리적 관리 방안은 2차례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에 따라, 현 상태에서 ‘제주큰굿’의 지정가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주큰굿’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재검토 자문회의(’20.9.11.)

2) 지정가치 조사

○ 조 사 자 : 관계전문가 5인

○ 조사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조사의 지표 평가

3)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 일시/장소: '20.9.11.(금) 10시 /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사무동 강당

- 주요내용: '제주큰굿'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조사결과 논의 등

라. 검토의견

○ '제주큰굿'은 오랜 내력을 지닌 의례로, 맞이의식이나 놀이 등은 예술성등이 뛰어나며, 서사무가인 12본풀이는 한국의 살아있는 신화로 평가될 정도로 학술적 가치가 뛰어나다. 또한, 당클과 기메 등 물질적 장치를 통해 제주무속의 신관념을 온전히 표현한다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지정가치가 높다고 판단됨.

○ '제주큰굿'은 최소한 4~5명의 심방이 14~15일 정도 함께 연행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체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종목임.

○ 다만, '제주큰굿'의 전승현황 및 전승기반 등을 고려하여 보유단체 인정 필요성 및 인정 방식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마. 검토할 내용 : '제주큰굿'의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을 위한 지정가치 재검토

바. 의결사항

○ 가결함(출석 6명, 가결 6명)

-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종목 지정 가치 있음.

- 보유단체 인정조사 추진할 것.

3. ‘인삼재배와 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재검토

가. 제안사항

‘인삼재배와 문화’의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2019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에 따라 ‘인삼재배와 문화’에 대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19.4~8월)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9년 제14차 무형문화재위원회에 검토하였음. 추가 조사 내용에 대한 보완 이후 ’20년 제6차 무형문화재위원회(’20.7.17.)에서 검토하였고, 종목 명칭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신규종목 지정 여부에 대하여 재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추진경과

- 2019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수립(’19.1.23.)
- ‘인삼재배와 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 실시(’19.4.15.~8.12.)
- 2019년 제14차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19.9.20.)
 - **보류함.** 인삼의 전통 재배법, 가공법, 관련 전통문화 등을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음.
- 관계전문가 검토의견서 작성 및 제출(’20.2~6월)
- 인삼재배와 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관계전문가 자문회의(’20.6.18.)
 - 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 기관 관계자 참석, 지정 방향 논의 등
- 2020년 제6차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20.7.17.)
 - **보류함.** 종목 명칭에 대하여 추후 논의기로 함.

2) 학술조사 개요

- 조사기간 : ’19.4~8월
- 조사기관 : (재)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 조사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지정 조사의 조사지표에 따른 지정가치 조사
 - 조사지표별 심화조사

3) 조사내용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필요성>

- 산자락의 순환식 이동 농법을 통한 자연친화적 토지 이용, 햇빛의 방향과 바람의 순환을 중시하는 해가림 농법, 밭의 이랑을 낼 때 윤도(輪圖, 나침반)를 이용하여 좌향(坐向)을 살피는 등 인삼재배는 현재에도 전통 농법을 지속 유지하고 있음.
- 인삼에 대한 기록은 삼국시대부터 찾아 볼 수 있고, 조선시대에는 각종 의학서 및 농서류 문헌에서 그 효능 및 재배 관련 기록이 확인됨. 우리나라 인삼은 약효와 품질이 우수하여 삼국시대부터 중국, 일본과 중요 교역품 중에 하나였음.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 농업 및 상업,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인삼 관련 약재, 음식, 관련 의례 및 공예품, 관련 노래 및 이야기 등이 풍부하고 한의학, 식품영양학, 민속학, 인류학, 경제학, 사회학, 국문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함.

<종목 지정 방식에 대한 검토>

- 인삼재배와 문화는 특정 지역이나 가문, 계층에서만 향유하는 문화가 아닌 삼국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한국의 인삼재배 농가에서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소산이므로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하기 어려워 종목만 지정하는 것을 제안함.

<종목 지정 명칭에 대한 검토>

- '19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수립('19.1.24.) 시에는 '인삼재배와 문화'로 종목 명칭이 검토되었음. '인삼문화'는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며 '인삼'의 경우에는 재배와 관련된 농업기술과 전통지식이 관련 무형문화의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재배'라는 용어가 포함된 '인삼재배와 문화' 또는 '인삼재배'를 함께 제안함.

5) 추가 조사

- 관계전문가 검토의견서 작성
 - 기 간: '20.2~6월
 - 관계전문가 : 3명
 - 내 용: 인삼의 전통 재배법, 가공법 및 관련 전통문화 관련 연구조사 보완 사항 검토

○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

- 일시/장소: '20.6.18.(목) 16시 / 대전청사
- 참석자 : 관계전문가 및 유관 기관 대표 7명 등
- 주요 내용: 지정 가치 조사 연구용역 내용 검토 및 보완, 지정 범위 및 명칭 등 지정 방향 자문 및 지정 관련 의견 청취

<종목 지정 명칭에 대한 재검토>

- 인삼은 재배와 관련된 전통 농업기술 외에도 소비 및 가공과 관련된 향유 문화도 발달했기에 이를 포함할 수 있는 인삼재배와 소비, 인삼재배와 이용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한편, 고려인삼연합회 등 일부 기관에서는 지정 명칭과 관련하여 ‘고려인삼’을 제안하였음.
- ‘인삼’의 경우에는 재배와 관련된 농업기술과 전통지식이 관련 무형문화의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재배’라는 용어가 포함된 ‘인삼 재배와 문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2020년 제6차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20.7.17.) 시 ‘인삼재배와 이용(문화)’, ‘인삼재배와 식이문화’, ‘인삼재배와 문화’, ‘(한국의) 인삼문화’, ‘인삼재배와 약용문화’, ‘인삼재배 관련 문화’ 등이 제시됨.

라. 검토의견

- 역사성, 학술성, 예술성·기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삼재배와 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연구조사(추가조사 포함)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가치 여부와 종목 지정 명칭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람.

마. 검토할 내용 : ‘인삼재배와 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종목 지정 명칭 재검토

바. 의결사항

- 가결함(출석 6명, 가결 6명)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예고함.
- 종목 명칭은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로 함.
-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종목으로 함.

4. 국가무형문화재 제98호 ‘경기도도당굿’ 정상화를 위한 조치계획(안) 검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